군산시 외국인주민 수, 사상 최대치

전년 대비 1996명 증가해 1만3374명으로 역대 최다… 첫 총인구 대비 5% 도달

군산시는 14일 외국인주민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의 5.0%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1만3,3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2023년 기준 군산시 총인구 26만5,764명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1,996명(17.5%↑) 증가한 것으로 2015년도 3%에서 역대 처음으로 5%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를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하며, 이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군구는 전국 44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군구에 군산시가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전북 도내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전주시 1만7,694명(총인구대비 2.7%)에 이어 두 번째이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3,531명으로 도내 가장 많은 인구 규모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3,531명(전년 대비 36.3%↑) ▲유학생 1,641명(전년 대비 9.8%↑) ▲외국국적동포 808명(전년 대비 9.5%↑) ▲결혼이민자 1,035명(전년 대비 0.5%↑), ▲외국인 주민의 자녀 1,909명(전년 대비 0.8%↑)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읍면동은 소룡동(3,729명), 나운3동(2,001명), 수송동(1,24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1만510명 중 베트남 2,654명(25.3%), 중국(한국계 포함) 2,608명(24.8%) 순이고, 체류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604명(24.8%), 1년 미만 2,577명(2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시에는 초기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외국인 주민이 총인구의 5%로 명실공히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때 활용되는 '총인구'란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조사기준 시점 전후 3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로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고사장을 직접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수능 시험장 찾아 수험생 격려

강임준 군산시장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고사장을 직접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오전 7시 30분 군산여자고등학교를 찾아 "그동안 오늘을 위해 애쓴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라며 응원했다.

이날 군산여자고등학교에선 3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으며 군산 관내에선 모두 9개 시험장에서 2천2백여 명이 수능시험에 임했다.

강임준 시장은 매년 수험생들을 격려해왔으며, 작년엔 인문계로 전환한 군산상일고 시험장을 찾아 응원했다. 특히 민선 8기에 들어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온 강임준 시장은 중고교생 무상 시내버스 요금 정책,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속 추진

국공립 천사 어린이집 개원… 262㎡ 규모 · 정원 45명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7곳 추가 설치 예정

익산시가 공보육 기반을 강화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익산시는 14일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더센트로 공동주택에 조성된 국공립 천사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시의원, 학부모, 보육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공립 천사 어린이집은 지상 1층, 면적 262㎡ 규모로 보육실 4개와 외부 놀이시설 등을 갖췄고 정원 45명으로 운영된다. 야간연장반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약 보육 보완에 힘썼다.

익산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실내 개보수(리모델링)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 설치 협약 시 정원의 70% 이내를 아파트 입주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천사 어린이집을 포함해 20개소다.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폭넓은 공보육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정원연구회 정책간담회 개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조성 · 운영방안 추진방향 제시

익산시의회 정원(지방·민간)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4일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서 '익산시 정원·민간정원 조성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익산시의회 정원 연구회는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조성방안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자 지난 7월 등록하여 최재현 대표의원과 함께 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 의원 총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최재현 대표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의원들과 익산시 관계 공무원, 지방정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그간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현재 추진되는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아가페정원, 달빛소리 정원) 2개소 사업들을 점검해 보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익산시만의 특색있는 정원 조성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현 연구회 대표의원은 "시는 시민들의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익산시의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아트센터, 라면 콘텐츠 복합공간 '보글하우스'로 재탄생

체험형 현장투어 · 라면 홍보관 운영

익산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에 위치한 익산아트센터가 라면 콘텐츠 복합문화공간 '보글하우스'로 변신을 마쳤다.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오는 16일 오후 2시 보글하우스 개관식을 개최하고, 라면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운영한다.

개관식 당일 보글하우스를 탐방하며 자신만의 라면을 찾아가는 체험형 현장투어를 진행한다. 또한 라면의 원조인 삼양라면과 장인라면의 하림 홍보관이 마련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문화예술의거리에서는 '케이-소울 푸드(K-Soul Food) 라면 페스티벌'도 개최돼 라면과 더불어 김밥, 떡볶이, 어묵탕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포함된 꽝 없는 경품뽑기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보글하우스 체험형 현장투어는 16일 이후에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익산문화관광재단(063-843-8816)으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체육인 인권헌장과 인권사업,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한다.

김영란 의원은 "군산시 체육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체육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아 안정적으로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자진납부 적극 독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자 2만4,000명에게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총체납 금액은 177억 원이고 건수는 9만 1,000건이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징수과(063-859-5651)로 전화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